

# 매튜 S. 하몬 박사,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제11강 :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본받으라는 부르심 - 빌립보서 3:15-4:3,

BiblicaleLearning.org, 테드 힐데브란트 저

, 저는 빌립보서 강해 시리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의 열한 번째 시간, 매튜 S. 하몬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본받으라는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4장 3절

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연구 열한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본받으라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4장 3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이 구절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가짐의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그는 먼저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예와 회심 전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한결같은 추구라는 긍정적인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본문을 읽기 전에, 빌립보서 2장 5-11절과 여러 유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11절에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서 바울은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영어 원문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동일한 그리스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2장 8절의 그리스도 찬송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음을 이야기하지만, 역설적이게도 3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찬송은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앞에 꿇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그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 즉 이교도 대적들을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영광이요, 수치이며,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에만 있다"고 묘사합니다. 그리스도 찬송에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칭송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며, 거기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송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 종의 형상,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며 자신을 낮추셨다고 노래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비천한 몸, 즉 겸손한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하여 모든 무릎이 꿇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구절 사이의 유사점은 빌립보서 전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 15절로 넘어가서 4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본받으라는 부르심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에 충실합시다. 형제 여러분, 저를 본받아 우리를 본받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금도 눈물로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뿐이며, 그들은 수치를 자랑하고, 마음은 세상적인 것에만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그곳에서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분은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나의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너희는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라.

나는 에우오디아와 신티케에게 주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라고 간청합니다. 또한 진정한 동역자여,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온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들은 클레멘트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했으며,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첫 구절부터 본받으라는 권면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완벽함이나 성숙함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에서 ESV는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시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그 단어는 '완벽하다'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여기서 그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성숙, 즉 영적인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의 목표가 바로 성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목표는 분명 완벽함입니다. 하지만 영광을 얻기 전까지는 완벽함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기업 프로젝트이자 공동체 프로젝트라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혼자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1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죠.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자들이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목하십시오. 17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본받아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는 관찰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며, 주변을 둘러보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 행동, 말투를 의도적으로 관찰하고, 그들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모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 삶에 접근하는 방식 등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한결같은 추구,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끊임없이 압도당하거나 산만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바쁨과 우선순위, 그리고 쌓여가는 책임들 속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추구를 굳건히 지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아직 완벽에 도달하지 않았음을 아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처음에는 다소 낙담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자신이 아직 얼마나 더 성장해야 하는지를 점점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와, 그리스도와 함께 10년을 걸으면 정말 멀리 왔겠지, 20년, 30년, 40년은 더 갈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점에 도달하면, '물론 멀리 오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영적인 삶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목표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장과 영적 성숙을 인정하는 것은 유익하지만, 더 이상 성장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영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만약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편지 앞부분에서 내가 한 말을 잊지 마세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공동의 마음가짐과 공동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요소로 지적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디모데와 에바프로디도를 떠올리게 하며 그들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단지 당면한 문맥에 따른 요약일 뿐입니다.

영적 성숙이 어떤 모습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1장 2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영적 성숙의 표징들을 살펴보십시오. 이러한 표징들이 바로 영적 성숙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8절에서 본문의 방향이 조금 바뀝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프로디도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영적 성숙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한 후, 18절에서는 갑자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마치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묘사되는데, 바울이 이들에 대해 언급한 이 두 구절만으로는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들이 불신자인지, 아니면 신앙에서 벗어난 신자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들은 아마도 불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한때 교회와 연관이 있었지만, 떠나서 일관성이 없는 신념과 태도, 행실을 가진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19절은 마치 속사포처럼 그들의 특징을 나열합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의 끝이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불신자임을 시사합니다. 바울이 1장 28절에서 믿는 자들은 대적 때문에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멸망의 분명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그런 연관성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을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라고 묘사하는데, 이는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정확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와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한다면, 뿌리 깊은 욕망은 마음뿐 아니라 내장, 즉 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구체적으로 음식과 폭식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넓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기본적인 욕망, 본능적인 충동에 이끌려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유대인과 음식 규례를 은유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다소 억지스러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문제를 언급할 때는 주저 없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편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견해는 아마도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현대 문화에서 성경이 수치스럽다고 말하는 것들을 오히려 찬양하는 사람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깨달음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 1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그것들을 신으로 삼을 때, 성경적 관점에서 수치스러워야 할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19절의 마지막 구절에서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듯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전에 이러한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마음가짐’이라는 표현은 그리스어 동사 ‘프레노(phreno)’로, 마음가짐, 즉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고방식 대신에, 타락한 세상의 일부인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다소 거칠게 들릴지 몰라도, 바울은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18절에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늘 말하였듯이 지금도 눈물로 말하노니, 그들 중 많은 이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울이 화가 나서 정죄하는 어조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악과 죄악, 그리고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 슬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를 채우는 데만 몰두하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2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것과는 정반대로, 빌립보 교인들은 하늘에, 천상의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1장 27절에서 시민권에 관한 표현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시민권이 우리의 특권과 책임을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왕국이나 정치 국가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특권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책임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장 27절에 나오는 동사, 즉 바울이 말한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살아가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여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장 27절을 제대로 읽고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조적인 것입니다. 이 하늘 시민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즉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는 자들과 대조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그곳에 둡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너무 천국에만 마음을 두어서 세상일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

사람들이 그 말로 무엇을 하려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마음이 너무 천국에만 머물러 있고, 천국의 현실에만 너무 집중해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거나 돌보거나 돕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큰 선을 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는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단순히 우리가 구세주를 기다려야 한다고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무엇을 하실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1절에서 그는 “누가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누가 변화시키겠느냐?”는 우리의 비천한 몸, 즉 겸손한 몸이,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과 그리스도의 복종시키는 능력이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천하고, 타락에 물들어 있으며, 쇠약해지고, 질병과 노화에 시달리는, 타락과 저주의 산물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고 노화가 진행될수록 이 약속이 더욱 영광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몸이 질병이나 허약함, 타락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완벽하게 기능하는 몸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특히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삶을 제한하는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대로 우리 몸을 온전히 사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체와 같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 그거 좋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제자리에, 올바른 질서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 의도대로 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평화와 살롬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이 올바르게 질서정연하게 제자리에 있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기능한다는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 이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시편 8편과 110편, 다니엘 7장과 같은 곳에서 이러한 현실을 예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사명의 실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왕권 아래 있는

대리 왕, 즉 부왕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물론 아담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원래 행했어야 했지만 행하지 못했던 통치를 행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로마서 8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도 그 현실을 다룰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짧은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굳건히 서라고 권면합니다. 먼저 그가 그들에 대해 다시 무엇을 말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그들이 자신의 형제이며,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며, 그들을 사랑하고 간절히 바란다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에 근거하여 바울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굳건히 서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1장 27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편지 본문은 굳건히 서라는 권면으로 시작하여, 굳건히 서라는 권면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 흥미로운 부분은 마치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읽다 보면 4장 1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바울이 이제 마무리 짓는 중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2절에 이르면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에바프로디도가 돌아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그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읽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프로디도가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모았고, 에바프로디도는 바울에게서 온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바프로디도는 일어나서 편지를 펼쳐 읽었고, 모두가 그 편지를 좋아했습니다.

마치 "와, 이거 너무 좋다. 정말 마음에 든다."라는 느낌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4장 2절을 읽습니다. "내가 에우오디아 와 신티케에게 간청하노니, 주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라." 이 구절을 읽자 모두가 침묵에 잠겼을 것입니다.

회중들이 "저 목사님이 방금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어?"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 되십시오"라고 말씀하시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의 갈등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사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모두 그 갈등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사실, 바울이 그들을 질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에우오디아와 신티케 사이의 갈등이 과급 효과를 일으키기 시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편을 나누고 자기주장을 하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 에우오디아의 말이 맞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는 지금 신티케 진영에 있어요. 그래서 파벌이 형성되거나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바울이 나서서 "이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온 회중 앞에서 그들을 질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서서 해결을 도우라고 촉구합니다.

먼저, 3절에서 바울은 "참된 동반자여, 내가 너에게도 묻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어떤 이들은 이것이 실제로 이름이며, 그리스어 단어 'syzygous' (쌍둥이) 를 고유명사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내가 당신에게도 부탁 하건대, 이 여인들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친구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그의 이름은 진정한 동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내가 그 사람들을 지목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거라고 확신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가 에우오디아와 신티케를 지목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들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해 왔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거의 무너질 뻔했던 부분은 바로 이들이 복음을 위해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들과 나란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 사이의 갈등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동료가 개입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들이 클레멘트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에 나와 나란히 헌신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마지막 구절을 덧붙입니다. 그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는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서 공통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개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부분은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제발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오히려 내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오래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누가

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이 사랑하는 믿는 자들이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같은 정체성을 공유합니다. 그러므로 이 갈등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이 구절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본받을지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누구를 본받을지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이 구절을 통해 가르치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먼저 “올바른 사람들을 본받아 함께 모이십시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올바른 사람들을 본받는 데 함께 힘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18절, 318절부터 41절까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올바른 사람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적들이 세상에 존재하며,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올바른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적용점을 제시합니다.

화해를 추구하십시오. 화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화해를 가져오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너무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을 너무 싫어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갈등에 지나치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는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여 화해와 회복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적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본모습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유명인을 숭배하는 식의, 즉 “나는 이 설교자나 저 설교자의 팬이야”와 같은 얕은 의미의 팬심을 갖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게 그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믿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지만,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고, 고대하고, 기대하며,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 몽상에 잠기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여러 가지에 대해 몽상에 잠기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방황하며, 어떤 것들에 대해 몽상에 잠기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새 창조 안에서 거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화해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은 복잡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갈등이 있을 때 서로 화해하도록 도우라고 부르셨습니다.

보니, 이것으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편지의 결론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편지 전체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도록 권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매튜 S. 하몬 박사이며, 빌립보서 강해 시리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4장 3절까지를 다룹니다.